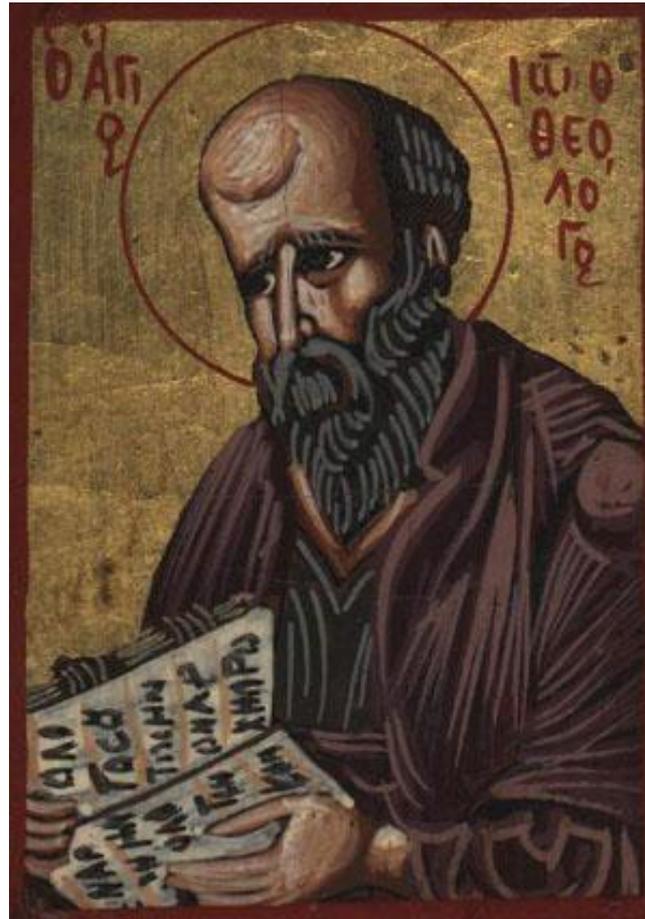


# 요한 묵시록



# 요한 묵시록

- 묵시라는 말은 숨겨진 것을 열어 보여준다는 뜻이다.(베일을 벗기다=계시)
- 묵시록의 저자는 종말을 어떻게 보는가?  
과거를 재조명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한다=> 멀리뛰기의 도움닫기  
묵시록의 저자도 종말을 알지 못한다. 다만  
하느님이 진실하시고 충실하신 분이라는  
점에 대해서만 확신한다.

# 요한 묵시록

-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하느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찾아 내고자 한다(하느님께서 어떤 대원칙들 속에서 역사하셨는지를 발견하고자 노력한다)
- 묵시록 안에 묘사된 이미지들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 색깔과 전통적 이미지

- **흰색** : 승리, 순수성
- **붉은 색** : 살인, 폭력, 순교자들의 피
- **검정색** : 죽음, 배교
- **빨** : 권세
- **붉은 옷** : 사제적인 품위
- **금으로 된 띠** : 왕적인 권력
- **흰 머리칼** : 영원성

# 숫자 상징의 의미

- 3=> 총만함, 신의 완전성
- 4=> 온 세상, 모든 창조물
- 6=> 완전수 7-1,
- 7,10,12=> 온전함, 완성 총만함
- 24=> 하느님 백성 상징( $12+12=24$ )
- 666=> 불완전수인 6을 세번 거듭한 가장 나쁜 수
- 1,000=> 많음을 뜻함
- 144,000=>  $12*12*1,000$   
구원받은 하느님의 백성의 수

# 목시록의 역사적 배경

- 요한목시록이 편집되던 시기 :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통치하던 시대이다.
- 황제의 절대권력과 황제 숭배의식 거행 강요  
=> 모든 식민지백성들에게 절대 복종
- 37-41년 통치 : 칼리굴라 황제
- 54-68년 통치 : 네로 황제
- 81-96년 통치 : 도미티아누스 황제
- 목시록에 나타난 순교자들의 이미지는 황제 숭배의식을 항거하는 모습이다.

# 요한 묵시록의 배경

-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에게 숭배의식을 바치면서 보장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성찬례(미사)를 거행함으로써 로마법을 위반하여 순교할 각오까지 하면서 우상숭배를 거부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상태이다.
- 이 절박한 상황속에서 묵시록은 하느님만이 유일하신 주님이시고 그분께만 영광과 권세가 있다고 선포한다.
- 묵시록에는 “증언자”와 “순교자”가 동일한 용어로 표현된다.

# 요한 묵시록의 배경

- 묵시록의 저자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을 대상으로 묵시록을 썼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영토에 퍼져 있는 일곱 교회들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과 시련을 똑같이 겪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마치 묵시록의 메시지가 자신들을 위한 것인 양 공감하게 될 것이다.
- 우리가 겪는 세상 안에서 현실의 유혹 속에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선택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즉 우리를 위한 메시지이다.

# 요한 묵시록과 구약성서

요한 묵시록	구약성서
하느님 옥좌에 대한 환시(4장)	이사 6,1-5; <b>에제 1,4-10.25-27</b> ; 다니 7,9-10
봉인된 책(5장)	<b>에제 2,9-10</b>
처음 네 봉인(6,1-8)	<b>즈가 6,1-6</b>
마지막 세 봉인(6,9-8,1)	<b>즈가 1,12</b> ; 이사13,10;34,4;27,13 호세 10,8; 에제 9,4.6; 이사 49,10;25,8
처음 네 개의 나팔(8,2-13)	에제 10,2; <b>38,22</b> ; 요엘 3,3; 탈출 9,22-23; 7,17; 이사14,12; 탈출 15,23; 예레 9,14; 탈출 10,21
나머지 두 개의 나팔(9장)	탈출 10,12-15;19,18; <b>요엘1,6-2,5</b>
작은 두루마리(10장)	다니 12,7; <b>에제 2,8-3,3</b>
성전과 증언자들(11,1-13)	에제 40,3; <b>즈가 4,3.14</b>

# 요한 묵시록

- **묵시록**은 더 이상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거나, 종말의 어느 한 순간을 미리 예견케 해 주는 책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자아내게 하는 책은 더 더욱 아니다.
- **묵시록**은 하느님의 구원 역사의 손길을 통해 오히려 믿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게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이다.

# 구조

- 전체 머리말과 편지의 인사(1,1-8)
- 주님의 현현과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1,9-3,22)
- 봉인된 일곱 두루마리와 일곱 나팔  
(4,1-11,19)
- 마지막 심판의 예고와 어린양의 승리  
(12,1-22,5)
- 그리스도의 재림과 맺음말(22,6-21)

# 요한 묵시록

- 인사 : 삼위일체안에서 인사를 함:묵시 1,4
-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 묵시 1,5
- 희망의 메시지 : 묵시 1,7
- 요한의 소명 : 묵시 1,9-20

(요한은 파트모스 섬에 유배->성령께 사로잡힘=>황금 등잔대 7개 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을 보게 됨 => 요한은 죽은 사람처럼 엎드리자 그분이 다가와 오른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다. …묵시 2,17-20)

# 일곱 교회에 보낸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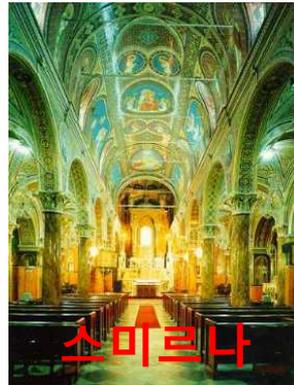
- 모두 소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들이며 당시에 아시아 교회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 1. 로마제국의 그리스도교 박해.
- 2.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이단 문제(많은 거짓 예언자와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신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었다)

# 소 아시아의 일곱교회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이아)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이아

# 요한묵시록에 나타나는 7개 교회



# 회개, 그리고 눈물

- 묵시 2, 2-5 : 네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 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 묵시 2, 25 : 내가 갈때까지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라
- 묵시 : 3,2 : 깨어 있어라...
- 묵시 3, 15-17
- 묵시 3, 19

# 요한묵시록 3장 20-22절



# 하느님 나라의 신비

- 4장에 나타난 하느님 나라 정리해 보자
- 하늘에는 어좌가 놓여있고 한 분이 그 어좌에 앉아 계시다. 어좌 둘레에는 무지개가 있고 앞에는 수정처럼 보이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어좌 주위에는 또 다른 어좌 24개가 있는데,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쓴 24명의 원로가 각각 앉아 있다. 앞뒤로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다(사자, 황소, 사람, 독수리) 네 생물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거룩하시다…” 외치고 있다.

# 하느님 나라의 신비

- 5장에 나타난 하느님 나라 정리해 보자.
- 옥좌에 앉아 계신 성부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다. 두루마리에는 일곱 봉인이 되어 있다. 그 일곱 봉인을 모두 뜯어야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요한은 속상하다. 두루마리는 분명히 세상을 위해서 큰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인데 일곱 봉인을 뜯고 읽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요한이 기도하다가 울음을 터뜨린다. 그때 한 원로가 나타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 뿌리가 승리하여 일곱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게 되었다” =>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

# 일곱 봉인

- 일곱 봉인의 이야기 중 6개의 봉인은 6장에 나오고 일곱 번째 봉인은 8장에 나온다.
- 일곱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불길한 재앙을 몰고 올 조짐을 예감케 한다. 이 불길한 예감이 8장에 가서 '천상성전의 제단 불을 가득히 담은 일곱 금향로를 땅에 던졌을 때' 그대로 실현된다.

# 여섯개의 봉인

- 4개의 봉인은 전쟁, 폭력, 기근, 역병을 몰고 온다.
- 5번째 봉인은 순교의 공포가 나타나면서 박해한 자들에게 복수해 달라고 부르짖자 잠시 기다리는 말 씀을 듣는다.
- 6번째 봉인은 우주적 대이변을 초래하는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 요한은 이러한 최후의 혼돈 속에서 하느님께서 여전히 확고하게 지배하고 계심을 망각하지 않도록 한다.
- 7번째 봉인은 하느님께 대한 전례가 기쁨에 찬 노래가 아닌 경외에 찬 침묵으로 표현된다.(예수그리스도의 파견과 십자가상의 죽음)=>

# 일곱번째 봉인

- 전쟁과 기아와 죽음을 가져오는 기사들이 인간의 전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 분명하게 표명되어 있다.
- 전쟁과 기근과 죽음조차도 흰 말을 타고 순회하는 승리자이신 하느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의해 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탈출사건)
- 인간의 전 역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최종 목적지를 향해 역사의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 144,000명

- 요한은 하느님의 나라에서 하느님 옥좌 앞에서 영광을 받는 의인의 모습으로 하느님 나라를 살짝 보여준다. (묵시 7,2-3)
- 의인은 이마에 인장을 받게 되는데 이들의 숫자가 144,000명이다.(12\*12\*1,000)
- 이 숫자는 하느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원하신다는 의미이다. 전 인류가 회개하고 참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종말의 그날, 모든 이들에게 인장이 찍힐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 여인과 아기와 용

- 일곱 봉인도 일곱개의 나팔도 모두 불렸다. 이제 남은 것은 인간의 노력과 교회의 노력이다.
- 다시 요한에게 두 가지 표징이 나타났다.
- 여인 : 묵시 12, 1 ; 용 : 묵시 12,4 ; 두 짐승 13장
- **두 짐승은 (1) 로마 제국 (2) 거짓 예언자**
- 묵시록의 여자와 마리아는 한결같이  
하느님 백성을 대표한다. 이 둘은 메시아를 출현시킨 이스라엘이요,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세상에 탄생시키는 교회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전승이 '태양을 입은 여자'속에서 마리아를 발견해 온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 대목의 목적은 '여자'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박해를 받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여전히 박해 받고 있는 하느님 백성의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성모마리아 대관식

(묵시록 12,1-엘 그레코 화가)



# 어린양의 잔치

- 묵시 15장 1절:일곱천사가 마지막 일곱재앙을 가지고 있음
- 이 천사들은 일곱대접을 들고 있으며 하나씩 대접을 쏟기 시작한다.(묵시 16,2-9)
- 종기,모든 생물이 죽음,물이 피가 됨,뜨거운 열,자기혀를 깨물음,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다 이루었다.=>대바빌론의 패망
- 어린양의 혼인 잔치:묵시 19,7-9 :
- 행복하여라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묵시 19,9 = 묵시 1,3) 행복하여라

# 천년 통치 (묵시 20장 1절-10절)



# 오소서 주 예수여

- 요한 묵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 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요한에게 보여주신(묵시 21, 11.25-26;22,4-5) 하느님은 이어 “내가 곧 가겠다”고 선언하신다. 세번씩이나...
- 묵시 22,7 ; 22, 12-14 ; 22,20
-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묵시 22,20)

- The Second Coming : 그리스도의 재림